

## 3장.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(1:7-22)

### I. 오늘의 포인트

1.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통하여 룯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.
2.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타이밍이 마침 추수때가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이 사건의 흐름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배경을 본다 .
3.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자기 인생의 이해와 해석을 살펴본다.

### II. 본 론

#### A. 나오미와 두 며느리간의 베들레헴 도상에서의 대화

- 1)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종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첫 번째 대화 (1:8-10):
  - : 먼저 감사와 축복을 하는 나오미
  - :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 고정된 안식처를 찾도록 축복함
- 2) 세 과부가 함께 울면서 나누는 두 번째 대화 (1:11-13)
  - : 자신에게는 당연한 귀환길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일생 일대의 선택
  - :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 없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나오미
- 3) 나오미와 룯의 심도 있는 대화(1:14-18)
  - : 룯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진심과 그 진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으로 인한 분명한 이유를 보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나오미
- 4) 오르바와 룯의 자발적 선택의 갈림길
  - : 오르바와 룯은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둘 다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.

#### B. 냉정한 현실 vs 믿음의 계산법

- 1)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서 경우에 어긋난 행동이거나 비난받을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.
- 2) 오르바가 그동안 시어미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을 나오미의 축복기도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을 볼 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
- 3)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들을 선택했다.
- 4) 룯의 삶속에 나타나는 긍휼이 여기는 삶

- : 룯의 선택의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이었다.
- : 더욱 큰 헤세드의 삶의 정신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 보는 삶
- :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룯은 나오미가 필요없지만 나오미는 룯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.

5) 룯의 삶속에 나타나는 희생의 삶

- : 더욱 큰 헤세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룯의 선택
- : 나오미를 따라 오기로 할 때 앞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부담.
- : 이방여인으로서 낯선 타향(베들레헬)에서의 거주의 부담.
- : 그곳에서의 삶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

6) 룯의 삶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정신과 본질적 내용

- : 나오미와 룯의 세 번의 대화는 궁극적으로 이 신앙적 놀라운 고백을 끌어낸다

‘...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,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...’(1:16)

- :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간 이방 여인이 그 집안은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방인의 삶에 동화 되어 가는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?

- : 룯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룯의 진심이 충분히 드러나게 한다. 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볼 때 점층적으로 룯의 진정성과 강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. 또한 룯은 자기의 결심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나오미가 룯과 같이 가기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.

‘...어머님이 **가시는 곳**에 나도 가고, 어머님이 **머무르시는 곳**에서 나도 머무르겠습니다.....어머님이 **숨을 거두시는 곳**에서 나도 죽고,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.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 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,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..’(1:16,17)

7) 룯이 찾은 안식처!

- : 안식처를 찾으라는 나오미의 말에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보이는 자기 동족을 떠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안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다.

- :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는 모습,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등을 생각나게 한다. 룯도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떠나 여호와를 따라 보이지 않는

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.

### C.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(기쁨)에서 마라(괴로움)로 바꿈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

- 1) 자신이 텅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자신의 상황묘사  
‘나는 가득 찬 채로 이 곳을 떠났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.....’(1:21a)
- 2) 나오미는 자신의 삶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룯의 존재가 있기에 채워져 있었다. 다만 나오미는 스스로 룯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룯이라는 은혜가 있었다.
- 3) 이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나오미  
‘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.....’(1:20)  
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.....’(1:21)
- 4)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나오미!  
여호와와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그러나 그를 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. 이는 자신의 고통을 자초한 것을 반성과 후회와 회개함의 표현이다.

### III. 적 용

1. 은혜를 베풀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 보는 선택을 해 본적이 있는가?
2. 선택의 귀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하여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?
3. 나는 절망속에 비어 있다고 느끼는데 이미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?
4.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?